

“전력 생산지는 전기요금 싸게… 햇빛연금 서남해안 전체로”

이재명 후보 “지방 이전 기업에 규제 완화·폐지… 5년 안에 기반 다질 것”

호남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거리 비례제가 도입될 것”이라며 “전기요금에 차이를 확실하게 뒤서 지방 생산지는 (전기요금을) 싸게 하면 지방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방 산업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시 드래곤즈 구장 축구장 북문에서 유세를 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5년 안에 당장 다 뭉치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그 기반은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남 영광에서 전기를 생산해 서울로 보내 서울 사람이 쓰는데도 전기 요금이 똑같아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생산지와 소비자, 송전 비용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이 이미 도입됐고 앞으로는 시행돼 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 전기가 쌀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지역에 올 수 밖에 없다”며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에 가져가 지방에서 시작하는 기업들한테는 땅 혜택을 주거나 웬만한 규제는 다 완화해주거나 폐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

유제인 ‘햇빛연금’ 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안군은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산업의 30% 지분을 인정해주고 이를 배당 받아서 연간 동네 가구당 250만원 정도 (수익을) 받는다”며 “앞으로 가구당 500만원 정도를 받게 하겠다고 하니까 신안군에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어 “서남 해안 지역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지방정부는 군수와 도지사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상대방을 별로 안 미워하는데 저쪽은 저를 진짜 미워하거나 혐오 또는 증오한다. 이것이 ‘공사 구별’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며 “뭉가 뭉든 사익이 개입된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을 따라서 편을 가르고 죽이려고 할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너 대통령이 되면 누가 그랬던 것 처럼 다른 사람 괴롭힐 거지, 무서워’라고 하더라”라며 “그들은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제 인생은 짧고, 집권 기간은 더 짧고, 할 일은 산더미인데 사람들을 쫓아다니거나 목표를 정해서 괴롭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게 즐겁지 않다. 정치보복은 걱정하지 말라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광양시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계엄권 발동 부적절”

尹 탈당 문제에 대해 “尹이 판단할 문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와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이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하더라도 계엄은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정말 지방에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과 국론이 분열됐던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와 말씀을 드린다”면서 “내란이나 아

니나 이런 것은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말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가 탈당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통화를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탈당하라, 탈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을 다 포용하겠다”며 “용광로와 같이 어떤 분야라도 다 포용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쇠물을 녹이는 온도로, 이질적인 많은 분들을 녹여 국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과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배우자들도 뚫는다…김혜경 “종교계 등 찾아뵐 것” 설난영 “소외된 곳 찾아뵐 것”

김혜경, 조계종 행사·명동성당 방문… 광주 찾기도
설난영, 조계종 행사 방문… 조만간 호남 방문 검토
두 사람 조계종 행사서 조우하기도… 내조 경쟁도 시동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내조’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연일 후보가 직접 가지 못하는 현장과 인물들을 챙기며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종교 행사 참석, 국민 소통 등의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물밑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는 이 후보 공개 일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후보 동행 일정이나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실제 김 여사는 지난 12일 조계종 행사 참석, 13일 명동성당 방문 등 ‘종교계 예

방’ 행보를 보이면서 주변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전남(14일)에는 광주 빔고을노인 건강타운 구내식당에서 배식 자원봉사를 한 뒤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5·18 유족들과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 주로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의 원로 인사들을 만나 고견을 듣고, 이를 이 후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안해 “후보 배우자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로우키 전략이 필요하다”는 당내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일정의 기본 컨셉트가 종교계 어르신들 만나서 국민의 마음을 전달 받고 이를 후보에게 전달

해주는 것”이라며 “어차피 선거의 중심은 후보자이고, 우리는 보조 역할이라서 앞으로 후보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는 이번 대선 기간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선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고흥에서 순천여고를 졸업한 설 여사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전후로 호남 방문을 검토하는 등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설 여사는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인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14일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호남미래포럼 조찬 포럼 참석 등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설 여사는 이르면 16일부터 공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설 여사 측은 “설 여사는 ‘실무진도 최소화하자. 필요한 부분, 필요한 인원만 하

자’고 말했다”며 “후보가 직접 못 가는 소외 계층, 꼭 방문해야 할 곳을 본인이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여사 기조는 ‘만나 뵙는 분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표에 도움이 되느냐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일정을) 온전히 만나 뵙는 분들 위주로 한다. 만나 뵙는 분들이 동의 안하면, (선거를 위해) 공개해서 피해드리거나 불편함을 드리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노조위원장 시절이나 김 후보가 경기지사와 국회의원 시절 평소 해왔던 대로 낮게, 현장에 직접 가서 만나 뵙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챙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 “가장 보수다운 후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여건을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기에 이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 지지 선언은 정당 가입 등 제 거취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떠나며, 보수 지지자들에게 호소드린다. 오늘의 보수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합리·개방·포용·

자유를 기준 삼아 정치 판단을 내려달라”며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실패한 대통령을 다시 배출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며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APEC 2025 KOREA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APEC 2025 KOREA

이 공식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